



함께가요~
강의실로!

강사 : 임지현 교수(한양대 서양사 전공)
주최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원
일시 : 1월 14일
장소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대회의실

‘자연주의와 소박미’는 친일적 시각 동·서양 해체로 민족문화 재구성해야

상상의 지리 - 동양, 서양 그리고 한국

2008베이징올림픽 개막과 폐막공연은 중국 영화계 거장인 장예모(張藝謀)감독이 맡았다. 장 감독은 영화 ‘영웅’ (2002)과 ‘황후화’ (2006)를 통해 중국을 서빙에 알렸다. 비평가들은 장 감독 작품을 서양인의 감각에 맞춰 오리엔탈리즘으로 완벽히 포장해 냈다고 평가한다. 서양인이 원하는 동양의 이미지로 재구성된 동양은 중국뿐이 아니다. 우리나라 또한 ‘한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동양화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

은 오늘날 국가이념과 민족성의 동화에 부합되는 사실성의 문제를 협의한다. 이런 점에서 서양 근현대사는 물론 동유럽사와 민족주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한국의 제반 문제를 푸는데 활용된 임지현 교수(한양대)의 강연은 우리에게 다른 역사적 자아 주체라는 해석 관점의 가능성을 고민하게 만든다.

임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동·서양 문화의 해체를 통해 민족문화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가 우리에게 던진 ‘민족문화’라는 화두가 어떻게 재정의되어야 하는지 그의 강의를 통해 들어보자.

동양(oya)과 동아(toa)의 차이

독일 역사학자 라인하르트코젤레(Reinhard Koselleck)는 2004년 독일역사학회에서 ‘동양과 동아의 사용에 어떠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가’를 발표했다. 코젤레는 “동양과 동아시아, 동아시아 공동체, 대동아공영권 등 발화자가 긍정적 뉘앙스의 이미지를 추구할 때는 ‘동아’를 쓰고, ‘동양’이란 말은 부정적 뉘앙스로 의미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오리엔트를 처음 동양이라 번역한 곳은 일본입니다. 하지만 영어권과 불어권에서 사용되는 오리엔트 속에는 동아시아를 천시하는 오리엔탈리즘적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내려보는 관점입니다.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어(Ostasien)에는 동아시아에 대한 경멸의 의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은 본격적인 아시아 식민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일본은 오리엔탈리즘적 요소로 동아시아를 표현했을까요? 일본은 끊임없이 아시아를 벗어나 서양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변국인 조선과 중국을 연구하는 학문을 동양사 범주로 넣었습니다. 국사학·동양사·사학을 만들 때 일본사인 국사를 동양사에서 빼 일본은 아시아적 오리엔트가 아닌 서양의 경로를 밟은 문명국가임을 자변에 깔고자 의도했던 것이죠. 여기서 조선과 중국은 서양의 동양이란 의미를 깔고 있습니다. 반면 대동아 공영권을 이야기 할 때는 동양이라 하지 않고 동아라고 합니다. 결국 일본은 더 이상 동양이 아닌 것이 됐습니다.

서양과 유럽

우리가 쓰는 동양이나 동이라는 말이 실제적인 개념일까요. 저는 실제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성된 개념이라고 봅니다. ‘유럽’이란 말, ‘서양’이란 말

은 항상 ‘동양’이란 말과 함께 짝지어졌을 때 의미가 형성됩니다. 실제 유럽이나 아시아란 말은 ‘에우로파(europel)’, ‘아시(asiel)’라는 헤시오드의 <신동가>에 나온 여신을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기원을 더 깊게 어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날 유럽이나 아시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기보다, 역사적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재구성되는 용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치환

<동서양의 치환>(Displacing East and West)은 2006년 12월 폴란드에서 열린 독·폴역사가학회에서 발표된 주제입니다. 흥미롭게도 독일의 동양학은 폴란드 연구를 말하고, 폴란드의 서양학은 독일 연구를 말합니다. 2차 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을 만든 콘라트 아데나워(Adenauer Konrad)는 프랑스와의 접경지에 살면서 라인강을 건너 프로이센 영토에 올 때마다 “아~ 야만적인 아시아~”를 외쳤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문명적인 영향을 받은 라인강에 살던 아데나워가 볼 때 라인강 동쪽의 독일 지역은 서양이 아닌 아시아였던 것입니다.

일본역사학

동아시아가 독자적 정신문화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서유럽의 역사방법에 따라 자신의 역사를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국사학인 <일본사학>이 1878년 파리 국제박람회 사무국의 요청으로 편찬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과 관련해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에서 본 모델에 따라 자기 고유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최초의 <일본미술사>는 미국인 어니스트 페놀로사(Ernest Fenollosa)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20년간 살면서 서양미

술의 분류체계에 따라 일본 미술을 조각, 회화, 건축, 공예의 장르로 구분했습니다.

한국역사학

김원룡 선생과 안희준 선생이 공저한 <한국미술사> 서문을 봅시다. 한국미술의 특징을 ‘자연주의와 소박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외국 미술사가의 평을 인용한 것인데요. 해방이후 일본에서 동양사를 공부하고 돌아온 이들은 일본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어진 일본에서 조선으로 바꿨습니다. 근대 한국 미술사는 동경제국대 공과대학 조교수였던 세키노타다스(關野貞)로 인해 시작됩니다. 그는 일본 미술사에 적용된 유럽적 모델에 따라 한국미술을 분류하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세키노는 의도적으로 통일신라 미술을 고풍기했다고 조선시대 예술을 국가·지방·인민이 피폐한 퇴락한 예술시기로 저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신라 이래 쇠퇴한 한국 역사는 당연히 일본의 지배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펴는 근거가 됐습니다.

한국미술의 본질이라 통칭되는 자연주의를 조선 백자의 미술적 가치로서 승화시킨 이들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입니다. 야나기는 ‘조선의 백자는 외양이 여성적일 뿐 아니라 편안함과 위안을 준다. 정이 넘치고 여성의 따뜻함과 나섬 없는 사려 깊음이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것은 조선백자라는 물질의 여성화를 넘어 조선과 조선인의 여성화로 규정됩니다. 통념적으로 한국의 문화 정서가 ‘한’이 되어 버린 지금, 야나기의 조선 애정이 오늘날 민족주의에 끼친 영향을 가능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하자면 오리엔탈리즘은 기본적으로 셀프로리엔탈리즘(Self-Orientalism)입니다. 이제는 구성주의적 시선, 탈식민주의적 시선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동아시아 역사가 재고되어야 합니다.

글 · 사진=가연숙 객원기자 ornflower@hanmail.net

민족예술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살아온 삶의 흔적의 편린들. 여기저기 있는 그것을 우리는 민족문화라는 집합으로 묶어 ‘민족문화’라고 이야기 한다. 우리는 여기서 민족문화의 특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거기에 맞지 않은 삶의 문화적 편린은 재구성 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늘 이야기는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나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을 갖고 한국사회에서 한국의 문화학과 한국학 또는 동아시아학을 연구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여기서 ‘상상의 지리’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가 <오리엔탈리즘>에서 이미 말한 ‘동양을 동양화 하는 것의 표상’임을 밝힙니다.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 주요 수록 내용 ■
금합이야기
성기가 발을 만들어요
따미 미체가고 있어요
외계종 이야기
바퀴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치제와의 불꽃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 이야기
성공수술 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발 걸혼한 검사님
입퇴와 세스의 비밀
누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누편과 헤어낸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년과 사별이야기
남자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 바꾸는 법

■ 책속 부록 ■
▶ 생일로 할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권 애용비법
▶ 민문 보는 법
▶ 시(時)로 보는 운명
▶ 불교로 손(掌성) 보는 법
▶ 심재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 (예금주: 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관주광역시 북구 용곡(명동)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서울 · 경포구 이현3동 8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 www.indeenet.co.kr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편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명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풍기 정품
홍삼 엑기스 판매

100ml×60포 (한달분)
20여종 제품 판매

판매처 054)634-3429 휴대폰 011-9373-3778
E-Mail: pay3579@hanmail.net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 (예금주 : 박영애)

대리점 운영하실분
(물품대 백만원으로 생활고 보장)

여름철 풍기 인견옷,
인견이불, 몸매, 난방 판매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제품
스님, 불자님께는 특혜드림